

## 제44회 석유화학강좌

‘고분자에 사용되는 첨가제’를 주제로 개최



**한** 국화학산업연구회와 ACS한국국제화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제 44회 석유화학 강좌’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대전시 유성구 국립 한밭대학교에서 개최됐다. 1995년 첫 시작으로 매년 2회 개최되고 있는 강좌는 화학산업과 관련된 기초 이론 교육은 물론 현장 실무 사례 발표로 이뤄져 있다. 이번 강좌에는 관련 산업계와 학계에서 150여 명이 참가해 큰 성황을 이뤘다.

이번에 개최된 석유화학 강좌의 주제는 ‘고분자에 사용되는 첨가제’였다. 고분자의 성능을 높이는 첨가제의 개요와 더불어 최신기술 동향 및 실제 사례들에 대한 각계 각층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틀로 구성된 강좌는 첫날 이대수 교수(전북대)와 공석우 박사(나노컴)가 좌장을 맡아 롯데케미칼 오석영 차장의 ‘복합재료를 위한 무기 충전제’를 주제로 발표가 시작됐다. 이어 BASF 양재모 과장의 ‘플라스틱용 광안정제의 이해’, 화학연구원 김진수 박사의 ‘염료와 안료의 기초’, 솔루시스 김진원 부장의 ‘염료와 안료의 응용’을 주제로 강연이 이뤄졌다. 나노컴 공석우 박사는 ‘필름용 슬립제와 블로킹 방지제’, 애경유화 정종환 팀장은 ‘가소제의 종류와 특성’을 끝으로 첫날 강연이 마무리 됐다.

둘째날에는 이대수 교수와 김진환 교수(성균관대)가 좌장을 맡았

다. 오전에 시작된 강좌는 금호석유화학 윤승희 상무의 ‘충격 개질제’를 시작으로 동진씨미켈 조용연 부장의 ‘플라스틱 경량화 발포제’, 김진환 성균관대 교수의 ‘친환경 난연제’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SK이노베이션 조용래 수석은 ‘가소제로서의 광유계 오일’을, 다우 코닝 김봉식 부장은 ‘내열, 내후, 슬립(slip) 및 이지클리(easy-clean) 실리콘 첨가제’를 주제로 사례와 개요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는 전북대 이대수 교수가 ‘고분자 유체의 유변학적 성질’을 끝으로 모든 강좌를 마무리했다.

강좌를 주관한 화학산업전문가협회 도춘호 박사는 강좌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강좌를 통해 참석자간의 정보교환은 물론 서로 간의 친목과 교류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며 “다음 강좌는 오는 7월 ‘유화 중합의 기초와 응용’을 주제로 준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20년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석유화학강좌는 교육은 물론 신기술 및 국내외 석유화학 관련 산업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창구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하고 있어 국내 석유화학 산업과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P-science